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이라크

Republic of Iraq

2024년 4월 5일 | 조사역(G3) 박수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438천 km <sup>2</sup> 	<b>인구</b> 4,335만 명 (2023 <sup>e</sup> ) 	<b>정치체제</b> 의원내각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친이란 
<b>GDP</b> 2,550억 달러 (2023 <sup>e</sup> ) 	<b>1인당GDP</b> 5883달러 (2023 <sup>e</sup> ) 	<b>통화단위</b> Iraqi Dinar(ID) 	<b>환율(U\$기준)</b> 1,312.50 (2023) 

- 이라크는 아시아 서남부, 아라비아 반도 동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전체 인구의 97%가 이슬람교도이지만 시아파(63%)와 수니파(32%)로 나뉘어 있으며, 쿠르드족은 이라크 북부에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관할하고 있는 등 국가 내 여러 종파, 민족이 공존하여 갈등 양상을 보임.
- 2020년 말 기준 원유 확인매장량 세계 5위 및 OPEC 내 원유 생산량 2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음. 그러나 석유 부문 외의 산업 발달이 저조하여 국제유가, 원유 국제수요 등의 대외적 요인에 의해 경제지표들이 쉽게 영향받는 경기변동 리스크가 존재함. 2023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석유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2.7%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공공 서비스의 부재, 실업난, 부정부패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도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나 구조개혁 단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외에도 IS 잔당의 존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이란 간 충돌로 인한 안보 위협 등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다수 존재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7. 9 수교 (북한과는 1968. 1. 30 수교후 1980. 10. 10 단교)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83), 항공운수협정('86), 문화협정('86)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2	2023	2024	주요품목
수 출	986,297	1,150,883	1,195,520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수 입	5,331,337	9,483,975	7,901,101	원유,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8건, 382,196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5.4	-12.1	1.6	7.0	-2.7
소비자물가상승률	-0.2	0.6	6.0	5.0	5.3
재정수지/GDP	0.8	-12.9	-0.4	7.6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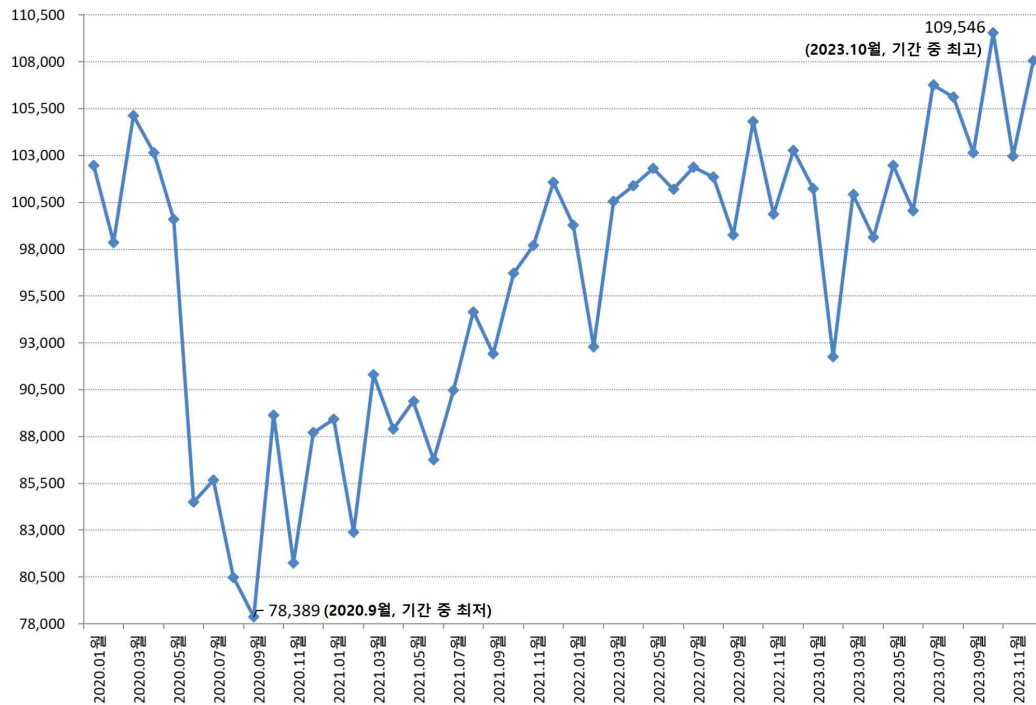
자료: IMF, EIU

### 국제유가 하락과 OPEC+의 감산 합의로 인한 원유수출 수익 감소로 2023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추정

- 이라크는 2020년 말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원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주요 산유국으로, GDP의 약 50% 및 총수출액의 약 95%, 재정수입의 약 90%를 석유 부문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하락과 원유의 생산량 및 수출량에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됨.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원유의 국제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석유수출국기구(OPEC) 14개 회원국들과 주요 10개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는 동년 7월 일평균 9.7백만 배럴 규모의 감산에 합의하였음. 그 결과 원유수출 수익과 상품수지 흑자가 동반 급감한 이라크 경제는 2020년 -12.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 이후 2021년 기저효과와 원유 수출가격 상승 등으로 1.6%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이라크 경제는 2022년 팬데믹 진정세에 따른 세계경기 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데 힘입어 7.0%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음.
- \* 이라크산 원유의 2020년 월별 평균수출가격(배럴당)은 팬데믹 본격화 전인 1월의 60.14달러에서 4월에 13.80달러까지 추락한 이후 점차 상승하여 12월 48.01달러를 기록하고, 2022년에는 상승세가 본격화되어 5월 112.19달러를 기록하였음. 월별 원유수출 수익도 2020년 1월 61.6억 달러에서 4월 14.2억 달러로 추락한 뒤 계속 증가하여 2022년 5월 114.8억 달러를 기록, 2022년 전체 원유수출 수익은 전년(756.1억 달러)보다 52.9% 증가한 1,156.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이라크 석유부 자료).
- 2023년 세계경기 침체, 미국의 산유량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맞대응하여 OPEC+가 동년 말까지 일평균 220만 배럴 감산 유지를 결정(이라크도 일평균 21만 배럴 감산 약속)했음에도 월별 원유 수출량은 2월 9,225.6만 배럴(연중 최저)에서 10월 1억 954.6만 배럴(연중 최고이자 2020~23년 중 최고)로 오히려 증가하였음. 그러나 월별 평균 수출가격(배럴당)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중앙정부와 쿠르드자치정부(KRG) 간의 원유수출 수익 배분 관련 갈등으로 KRG 관할지역에서의 원유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원유수출 수익은 전년보다 15.6% 감소한 975.7억 달러에 그쳐(이라크 석유부 자료), 2023년 이라크 경제는 2020년에 이어 또다시 -2.7%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계획 등으로 2024년에는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할 전망이나, IMF와 EIU 모두 테러 등 각종 치안 리스크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 국제유가 방어를 위한 OPEC+의 감산 조치 연장 등을 이유로 이라크의 2024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1%대로 낮게 잡고 있음.
  - 이라크 정부는 2024년 1분기에 일평균 22만 배럴의 감산을 통해 일평균 산유량을 400만 배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다만, 이라크의 2024년 1분기 원유 생산량은 감산에 따른 목표치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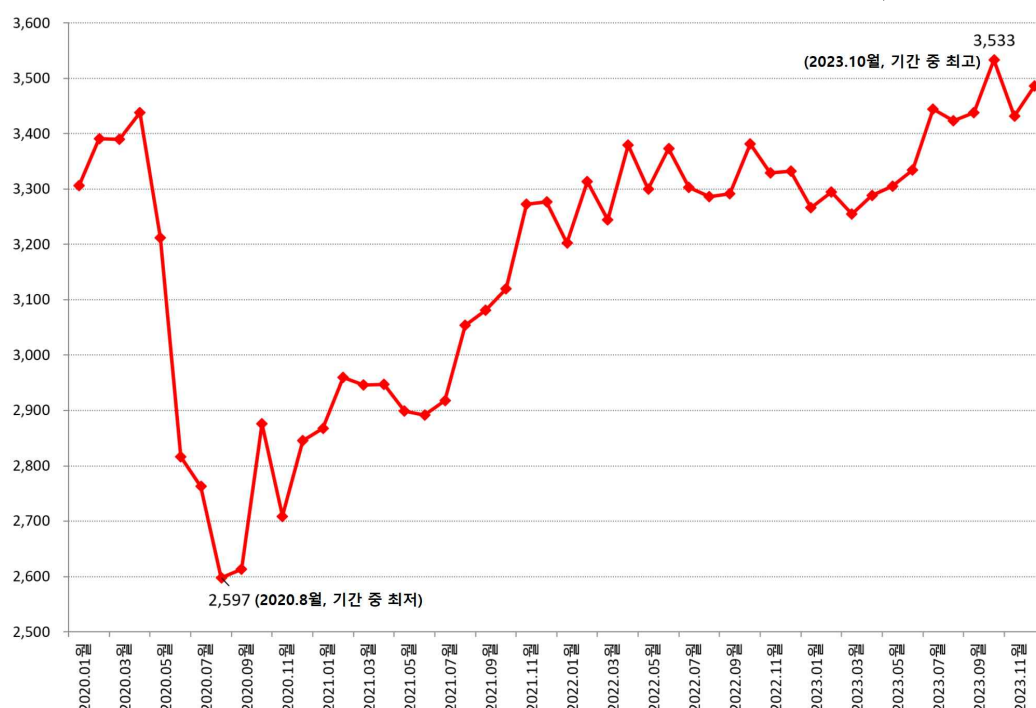
## 국내경제

[그림 1] 이라크 원유의 월간 총수출량 추이(2022.1월~2023.12월, 천 배럴)



자료: 이라크 석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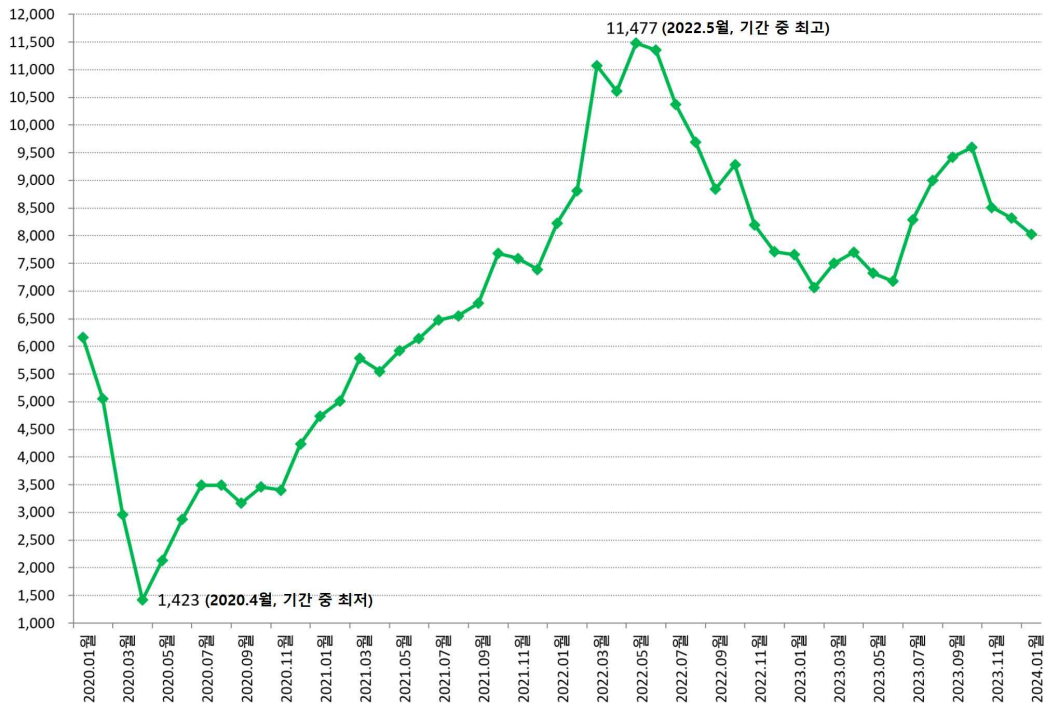
[그림 2] 이라크 원유의 월별 일평균수출량 추이(2022.1월~2023.12월, 천 배럴)



자료: 이라크 석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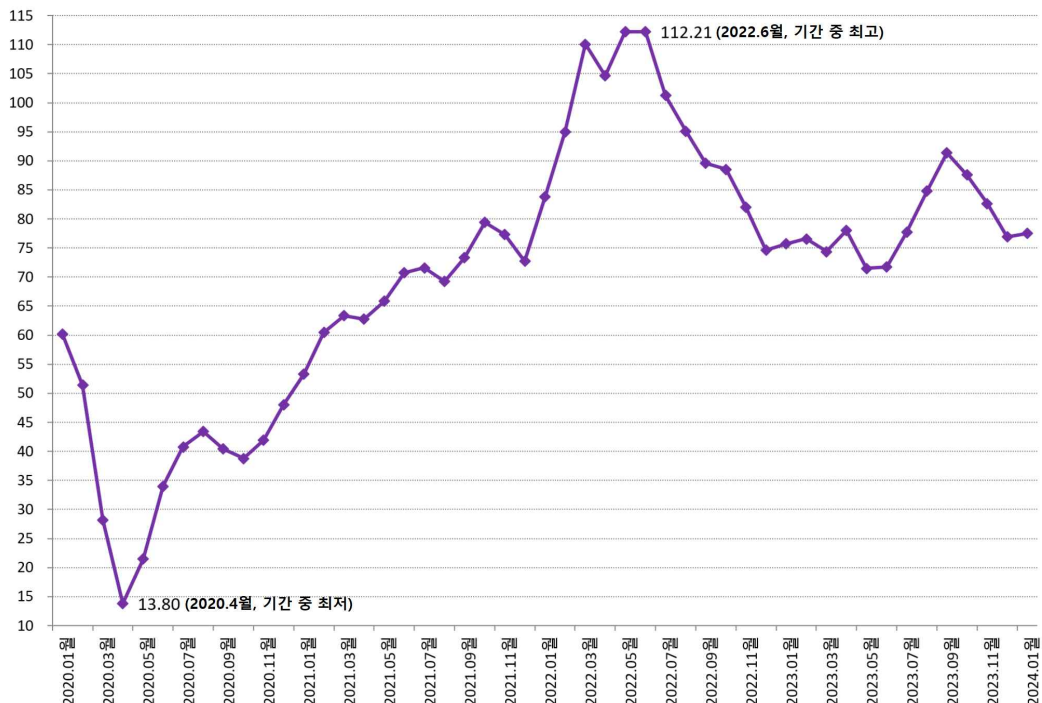
## 국내경제

[그림 3] 이라크 원유의 월별 수출수익 추이(2022.1월~2023.12월, 백만 달러)



자료: 이라크 석유부

[그림 4] 이라크 원유의 월별 평균수출가격 추이(2022.1월~2023.12월,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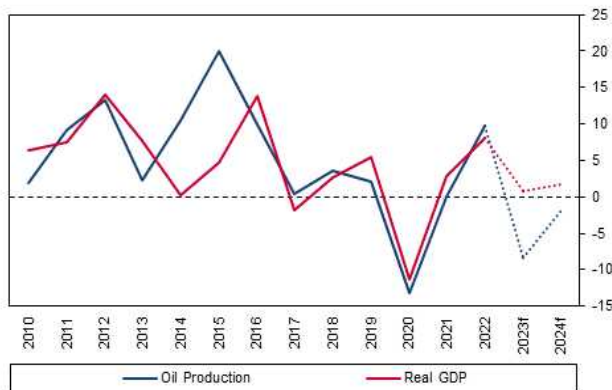


자료: 이라크 석유부



## 국내경제

[그림 5] 이라크의 실질GDP성장률과 산유량 증감률 추이(201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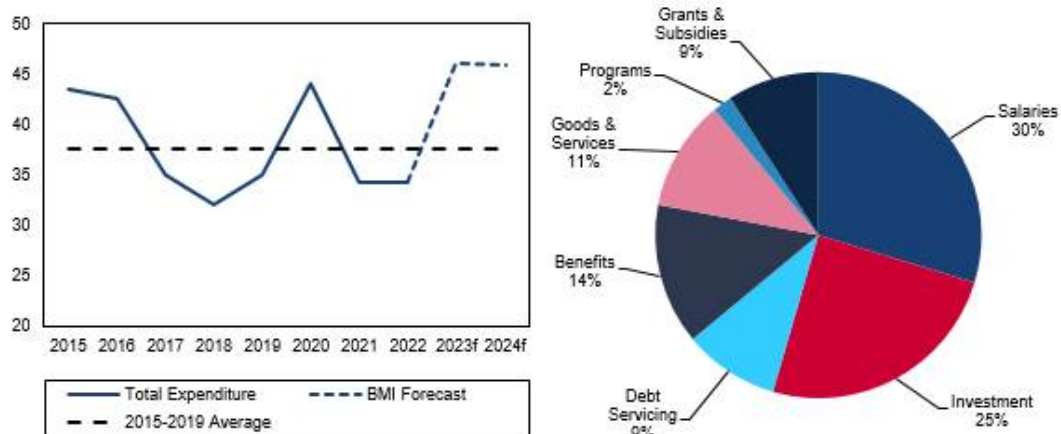
자료: FitchSolution

[그림 6] 이라크의 실질GDP성장률(%)과 국제유가(달러/배럴) 추이(2019~2033년, 브렌트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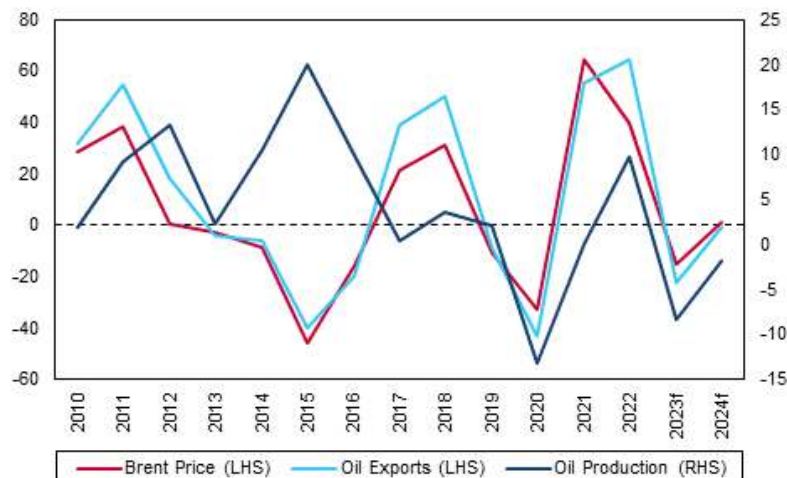
자료: FitchSolution

[그림 7] 이라크의 GDP 대비 재정지출 계획(2015~24년) 및 구성(2023~25년)



자료: FitchSolution

[그림 8] 이라크의 원유 생산, 원유 수출 및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증감률 추이(%)



자료: FitchSolution

## 국내경제

## 정부의 재정지출 증대에 따른 디나르화 통화량 증가 및 실질가치 하락으로 인해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

- 이라크 정부는 여타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력·연료·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16~20년 중 0%대로 억제해 왔으나, 2020년 12월 이라크 중앙은행이 저유가로 인한 재정 고갈 우려와 외환유동성 위기에 대응코자 디나르화의 미 달러당 환율을 1,182(2020.12월 기준)에서 20% 이상 낮춘 1,450로 고정(peg)하는 조치를 단행한 상황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까지 겹쳐 수입물가가 급등한 결과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0%로 폭등하였음. 반면 2022년에는 peg 조치의 정착으로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상품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이 제한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0%로 하향 안정되었음.
  - 2023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증대로 디나르화 통화량이 증가하고,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외환 이전 제한으로 이라크 내 미 달러화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디나르화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이라크 외환시장에서의 비공식환율이 1,700선을 오르내리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디나르화 가치 보호 및 환율 변동폭 최소화를 위해 2023년 2월 달러당 공식환율을 1,450에서 1,300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3%에서 안정된 것으로 추정됨.
  - 당초 이라크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제도를 2025년까지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2025년 이후에도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됨. 한편, 2024년 3월 기준 이라크 외환시장에서의 비공식환율은 1,500선 안팎에서 움직인 것으로 알려짐.<sup>1)</sup>
  - 이라크 외환시장의 최대 공급자인 이라크 중앙은행의 외환준비금 대부분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라크 내 자금 사용의 투명성 부족(이라크 외환시장에 공급된 미 달러화 자금의 일부가 비밀리에 이란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라크 중앙은행으로의 외환 이체에 제약을 가해 이라크 외환시장의 미 달러화 공급이 제한되어 이라크 현지에서 디나르화의 미 달러화 대비 실질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 미국이 대 이란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실시한 미 달러화 표시 외환의 대 이라크 송금규정 강화조치에 따라 최종 수취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 기재 및 전자 시스템에 의한 추적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미 달러화 송금 완료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

1) 2024.3.25.자 미국 Voice of America 기사 내용  
(voanews.com/a/iraq-central-bank-says-regulate-dollar-transactions-rising-/7542206.html)

## 국내경제

**석유 부문의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로 2023년 재정수지는 적자 전환이 추정되며, 정부의 2023~25년 재정지출 증가 계획으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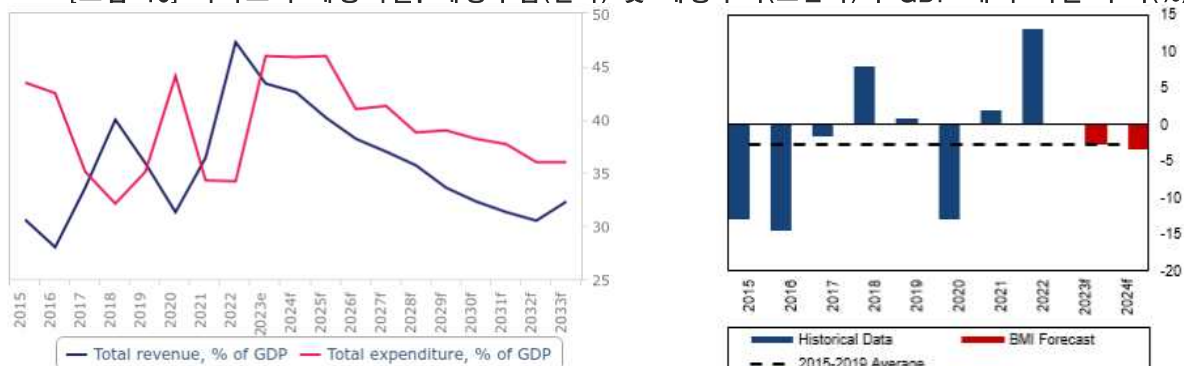
-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원유의 국제수요가 급감하면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과 석유 부문의 재정수입 급감이 겹쳐 2020년 GDP 대비 -12.9%의 적자를 기록한 재정수지는 이듬해인 2021년에도 팬데믹 대응 재정지출 지속으로 GDP 대비 -0.6%의 적자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수출 수익이 증가함에 따른 석유 부문의 재정수입 증가로 GDP 대비 7.6%의 흑자를 회복하였음.
- 2023년에는 세계경기 침체, 미국의 산유량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해 이라크의 월별 평균수출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하여 원유수출 수익이 전년보다 15.6% 감소함에 따라 석유 부문의 재정수입도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GDP 대비 -7.7%의 적자로 다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이라크 정부는 내전으로 파괴된 인프라의 재건 및 확충, 비석유 부문 발전을 위한 투자, 천연가스 개발, 공공 부문의 고용 증대 및 임금 인상 추진, 실업률 개선 등을 위해 2023~25년 중 재정지출을 증대할 계획이며, IMF는 이라크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2년 말 44.9%에서 2025년 말 61.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따라서 이라크의 재정수지는 2024년에도 적자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림 9] 이라크 소비자물가상승률(% , 연말 기준 및 연평균 기준) 추이



자료: FitchSolution

[그림 10] 이라크의 재정지출, 재정수입(왼쪽) 및 재정수지(오른쪽)의 GDP 대비 비율 추이(%)



자료: FitchSolution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 상 수 지	15,763	-6,306	24,565	58,010	34,690
경상수지/GDP	6.8	-3.5	11.9	22.2	13.6
상 품 수 지	32,168	5,815	38,363	71,130	51,262
상 품 수 출	81,585	46,863	73,084	118,045	100,523
상 품 수 입	49,418	41,049	34,721	46,915	49,261
외 환 보 유 액	62,899	48,143	58,177	89,012	102,406
총 외 채	64,468	67,559	68,457	62,771	59,648
총외채잔액/GDP	27.7	37.2	33.2	24.0	23.4
D.S.R.	2.9	9.5	6.7	5.3	3.5

자료: IMF, EIU

## 2023년 경상수지 흑자는 국제유가 하락세로 전년 대비 약 40% 감소 추정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이 원유의 국제수요 급감 및 국제유가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이라크는 원유수출 수익이 전년 대비 46.7%,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무려 81.9%나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GDP 대비 -3.5%의 적자로 전환되었음.
- 이후 2021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원유수출 수익이 전년 대비 80.7% 증가(팬데믹 발생 직전인 2019년의 96.2% 수준 기록)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무려 559.8%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도 GDP의 11.9% 수준의 흑자를 회복하였고, 2022년에는 팬데믹의 진정에 따른 세계경기 회복의 가속화로 원유 수출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면서 원유수출 수익이 전년 대비 52.9% 증가(2019년의 147.1% 기록)하고 상품수지 흑자도 전년 대비 85.4%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22.2%에 이르렀음.
- 그러나 2023년에는 세계경기 침체, 미국의 산유량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세에 더하여 KRG 관할지역에서의 원유 수출이 중단된 여파로 원유수출 수익이 전년보다 15.6% 감소한 975.7억 달러에 그치면서 상품수지 흑자도 전년 대비 27.9% 감소한 결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보다 낮아진 13.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상환능력

### 2021년 이후 외환보유액 증가 및 외채 관련 지표 개선 추세

- 상품수출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131.1%에서 2023년 52.9%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37.2%에서 2023년 23.4%로 각각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D.S.R.도 2020년 9.5%에서 2023년 3.5%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2.2%에서 2023년 1.8%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2020년 10.0개월분 → 2023년 15.5개월분) 단기외채상환위험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품수출액이 급감하면서 외환보유액도 481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상품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말 외환보유액도 2021년 582억 달러, 2022년 890억 달러, 2023년 1,02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이후 외채잔액 감소 추세와 함께 관련 지표들의 개선이 지속되고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이라크의 채무상환능력 전망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 구조적취약성

###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석유 부문의 발전이 더딘 불균형한 경제구조

- 이라크 정부는 1990년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UN 경제제재,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기반시설 파괴에 IS 등의 테러 공격까지 이어진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재정수입의 즉각적인 원천이 되어주는 석유 부문에 더욱 주력함. 그 결과 석유 부문에 경제가 과도하게 의존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비석유 부문의 발전이 지연되며 석유 부문을 제외한 산업 전반의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유지보수 역량도 부족함.
- 다만, 최근 IMF는 이라크 경제의 석유 부문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3년 이라크 경제의 비석유 부문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한편, 이라크 석유부장관은 가스 연소(gas-flaring; 원유 채굴시 수반되는 가스 연소) 중단과 함께 이라크 내 4개 주(Nineveh, Anbar, Diwaniyah, Muthanna 주)에 매장된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천연가스 생산을 본격화함으로써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성장잠재력

###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 거대 에너지기업과 대규모 투자계약 체결

- 이라크는 2020년 말 기준 원유 확인매장량 1,450억 배럴(세계 5위) 및 일평균 원유생산량 397.1백만 배럴(2022.12월 기준, OPEC 내 2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임. 서부 사막과 남부 습지의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아 향후 매장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 2022년 프랑스 에너지 기업 TotalEnergies가 이라크의 에너지 부문에 25년 간 2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후 2023년 7월 계약을 체결하였음. TotalEnergies는 일차적으로 향후 4년 간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TotalEnergies는 25년 동안 이라크 남부에 4개의 석유 가스 및 재생에너지 시설 건설, 바스라 주에 위치한 5개 유전의 가스 채집 및 가스전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구체적으로는 수반가스 포집활용도 개선, 1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바스라 지방 유정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물 주입용 용수를 마련하기 위한 담수화 시설 건설 등으로 구성됨. 이라크 정부와 TotalEnergies 간 사업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으나, 2023년 계약 체결이 완료됨.

## 정책성과

### 만연한 부정부패와 내부 분열 속에서 제도개혁은 지지부진

- 정부와 관료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나, 이라크 3대 부패방지 기관인 최고감사위원회, 청렴위원회, 검찰관 모두 부정부패 척결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남.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2014년 IS와의 전쟁 등으로 황폐화된 주택, 석유,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 재건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자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2022년 카디미 전 총리 내각의 고위관리 4명(전 재무장관, 총리실 대표, 총리 개인 비서, 총리 정치 고문)의 국세청 공금 25억 달러 횡령 사실이 밝혀졌음.
- 여러 종파(시아파, 수니파), 종족(아랍, 쿠르드, 기타 소수민족), 대외 노선(친미, 친이란)으로 사분오열되어 특정 정파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원유자원 빈곤지역과 부유지역으로 나뉘는 등 내부 분열이 심각하고, 경제개혁 및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책 추진력이 약하여 정부가 각종 제도개혁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알 수다니 총리의 미국-이란 간 중립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교 리스크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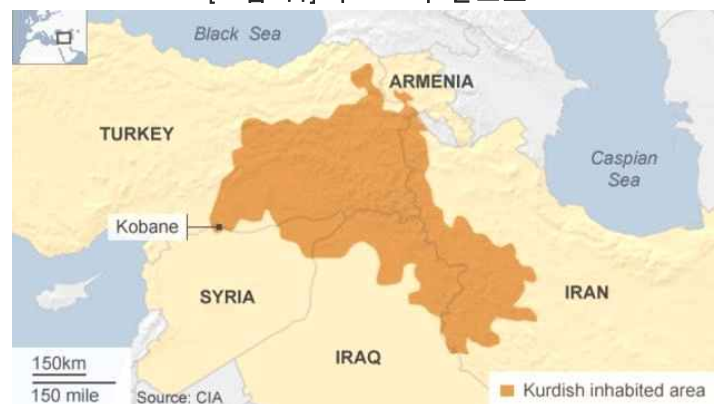
- 미국과 이란 모두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은 알 수다니 정부는 미국-이란 간 균형을 이루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려고 노력해옴.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내 미국 자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이라크 내 안보 위험이 상승함.
- 이라크 정부는 제한된 재정·군사 자원으로 인해 군사적 분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 따라서 주변 아랍 국가들과 중재자 역할을 도모하고, 이라크가 미국-이란의 갈등의 대리전장이 되지 않도록 중립적 입장을 지켰음.
- 현 이라크 총리는 미국 자산에 대한 공격을 '이라크의 안보를 저해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보복 공격을 '주권 침해'라고 언급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이란 시아파 파벌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에 점차 말려들게 된다는 상황이 현 정부의 중립외교 정책 성과를 저해시키고 있음.

## 정치안정

###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 간의 지속적 갈등 존재

- 쿠르드족은 독자적인 국가를 갖지 못한 전 세계의 민족들 중 최대 규모로 터키 남동부, 이란 북서부, 이라크 북부 및 시리아 북부에 걸쳐 분포해 있음. 이라크의 최대 소수민족으로 오랫동안 독립 투쟁을 벌여온 쿠르드족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계기로 2006년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자치정부(KRG)를 수립하여 아르빌, 다후크, 술라이마니아 3개 주를 자치 지역으로 관할하고 있음.
- KRG는 2017년 쿠르드 민족국가의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동년 10월 이라크 정부군이 KRG의 관할 지대를 장악하여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라크 대법원이 주민투표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KRG의 독립 움직임이 무산된 바 있음.
- 2022년 초 이라크 연방 대법원은 KRG가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독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2007년 법령이 위헌이며 KRG의 석유 부문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중앙정부에 넘기라고 판결함. 중앙정부는 이라크의 석유 수출 판매권이 국영 석유판매회사 SOMO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 중임. KRG가 이러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여, 대법원 판결 이행을 둘러싼 KRG와 이라크 석유부 간의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제중재재판소는 KRG가 관할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튀르키예로 수출하려면 먼저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2023년 3월부터 노르웨이 DNO, 영국 Gulf Keystone, 캐나다 Forza 등 외국 석유기업들이 쿠르드 지역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중단 또는 감축하였고, KRG 관할지역에서 일별 45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중단됨.
- KRG 관할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의 수출을 둘러싼 분쟁은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KRG는 다국적 에너지기업들과 튀르키예 은행들에 약 25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자치정부 재정이 부실화된 상태임. KRG 관할지역의 원유 수출 중단이 지속되면 KRG의 독립적인 석유 산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은 KRG의 독립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이라크 중앙정부와 KRG 간의 갈등 증폭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림 11] 쿠르드족 분포도



자료: CIA

## 정치안정

### 2022년 정식 내각 출범 후, 2023년 12월에 10년 만의 첫 지방선거 실시

- 여러 종파, 종족, 대외노선으로 분열된 이라크는 의회(의장은 수니파에 할당)에서 총리(시아파에 할당) 및 대통령(쿠르드족에 할당)을 선임하는 구조임. 2021년 이라크 의회는 쿠르드계 압둘 라티프 라시드를 신임 대통령으로, 시아파 모하메드 시아 알 수다니를 신임 총리로 선출하였으나 의회 내 알사이룬 정파와 친이란계 정파 간 갈등으로 내각 구성이 1년 지연된 후 2022년 정식 내각이 출범하였음. 이처럼 정식 내각 출범까지 갈등이 있었으나 전 내각 출범 당시와 비교하여 출범 소요시간 단축, 내각 대다수의 합의, 의회 내 미미한 반대세력 등의 고무적 요소들이 존재함.
- 미국과 이란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현 정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환경 아래 2023년 12월에 2013년 이후 10년 만의 첫 지방선거를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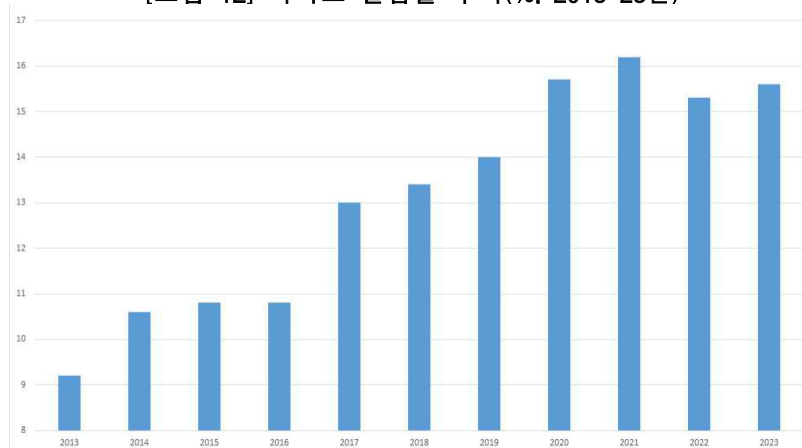


## 사회안정

### 공공 부문의 부패와 누적된 사회문제로 반정부 시위와 파업의 지속적 발생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이라크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154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함. 아울러 높은 빈부격차, 청년 실업률, 전력·상하수도 등 기초 공공 서비스 부족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여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도시들에서 반정부 시위와 파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이라크의 빈곤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계속 상승하여 2022년 기준 약 25%에 달함.
- 2019년 10월 이라크 중부와 남부에서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공공 서비스와 고용기회 개선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개선을 요구했으나, 국가 보안군 및 정부와 연계된 무장단체의 발포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한 바 있음.
- ILO에 따르면 2023년 이라크의 실업률은 15.6%로 추정되어, 2013년의 9.2%에 비해 현저히 상승함. 또한, 이라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율(구직자 포함)은 10.6%에 불과하며, 현재 직업을 가진 여성의 숫자는 100만 명 미만으로 그 중 70%가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있음.
- 2021년 실시된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 참여율은 40% 미만으로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평균(52%)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으로 청년 노동인구 중 35% 이상이 실업자 상태이며, 여성의 실업률은 65%에 달함.

[그림 12] 이라크 실업률 추이(% , 2013~23년)



자료: ILO

### IS와의 내전 종료 후에도 잔당들의 이라크 치안 위협 지속

- 이라크는 2017년 7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의 최대 거점인 모술을 탈환한 후 동년 12월 IS에 승리했다고 선언하였으며, 2021년 IS 격퇴를 위한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 전투 임무의 종료 선언 및 전투병력의 철수가 이루어짐. 그러나 여전히 이라크 전역에서 1,000여명의 IS 잔당이 활동하며 위협이 되고 있음. 2021년 바그다드에서 연쇄 자폭테러 발생 및 2022년과 2023년에도 잔당 소탕을 위한 교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상자가 발생함.

## 국제관계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란-미국 간 긴장 고조 등으로 이라크의 안보위협 증가

- 이라크는 미국과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임. IS와의 승리 선언 후 국제연합군 전투 임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이라크 내에 여전히 미군 2,500여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는 IS의 완전 소탕뿐만 아니라 이란 견제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이란은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를 지원하며 이라크 의회 내 친이란 세력을 확보하여 이라크에 대한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암암리에 행사하고 있음.
- 현 이라크 총리인 알 수다니는 2022년 10월 이란과 미국 모두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타결을 통해 집권한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균형과 국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함. 그러나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대응으로 이라크 내 미국의 군사·외교 자산이 친이란 무장단체들의 군사 공격의 표적이 됨.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을 시행하며 이라크가 이란-미국 간 갈등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는 이라크의 안보위협을 증가시킴.
- 2023년 10월 아인 아사드 공항의 미군을 겨냥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무인항공기와 로켓 공격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바그다드와 에르빌 공항의 미국 군사·외교 자산을 겨냥한 박격포 공격이 이루어진 바 있음.
- 미국은 2023년 11월 바그다드 남서쪽에 위치한 친이란 민병대의 거점을 공습, 2024년 1월과 2월에도 바그다드 내에 보복 공습을 가하며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함.
- 이라크 내 주둔 중인 2,500여명의 미군 철수 요구 주장이 의회 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함. 2024년 4월 알 수다니 총리의 방미와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으로, 동 회담에서 미군 철수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13] 시아파 영역



자료: FitchSolution

## 국제관계

### 이라크 북부 쿠르드노동자당(PKK) 기지에 대한 튀르키예의 지속적 보복 공습 및 대규모 군사작전 시사로 튀르키예와의 갈등 지속

- 튀르키예 국방부는 2022년 11월 13일에 발생한 이스탄불 폭탄 테러(체포된 범인은 쿠르드족)에 대한 보복으로 1주일 뒤인 11월 20일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노동자당(PKK) 기지를 공습, 32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튀르키예와 이라크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음.
- 튀르키예는 이라크 북부 산악 지대의 PKK 근거지 소탕을 위해 2019년부터 군사작전을 시행해오는 등 지속적으로 PKK와 대립 중임. 2023년 12월 말 이라크-시리아 국경지역에서 PKK의 공격으로 자국군 병사 12명이 전사하자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한 튀르키예는 2024년 3월에도 이라크 내의 PKK 관련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음. 튀르키예 대통령은 2024년 여름 내로 PKK의 이라크 내 주둔 상황을 끝내겠다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사함.
- 튀르키예는 이라크 내에 자국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군사작전을 벌이며 이라크의 철군 요구를 무시하여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왔음. 그러나 2024년 3월 이라크와 튀르키예의 외무장관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PKK는 양국 모두에 안보 위협이 되며, 이라크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은 양국 간 관계의 개선을 보여줌.

### 중국의 대 이라크 경제적 영향력 증가

- 중국 세관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대 이라크 수출이 14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이라크 내 중국산 제품의 소비 증가와 주택 건설 분야의 자재 수요 증가 등 앞으로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라크 무역장관은 중국이 이라크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으로, 2022년 기준 양국 간 교역규모가 53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함.
- 이라크의 에너지 부문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 중국은 이라크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이라크산 원유의 약 35%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라크 에너지 산업의 최대 투자국으로 이라크 내 여러 주요 유전의 지분을 확대 중임. 최근 수년 간 일부 서방 기업들이 이라크의 석유 부문에서 철수하며 매각한 지분을 중국 업체들이 매입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음.

###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지속적 관계 개선

-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는 1990년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이래로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지난 2016년부터 관계 회복을 시작했고, 양국 주재 대사관 재개 및 양국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치·안보·상업 관련 협정을 체결하는 등 최근 수년 간 극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고 있음.
-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와의 경제협력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동 프로젝트는 이라크 최대 규모의 쇼핑몰 건설을 비롯하여 4,000여채의 아파트와 2,500여채의 공동주택 건설이 포함될 계획이라고 덧붙임.

##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으로부터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액은 꾸준히 감소

-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미국의 요구로 파리클럽 회원국 앞 채무 400억 달러 중 약 80%인 330억 달러의 대규모 채무를 탕감받은 이력이 있음. 이라크는 현재까지 파리클럽으로부터 가장 많은 채무탕감을 받은 국가들 중 하나임.
- 2023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대 이라크 여신 잔액은 약 57.1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15억 달러가 연체 중임. 다만, 연체액이 꾸준히 감소하여 30억 달러('20.12월)에서 15억 달러('23.9월)로 3년 사이 약 50% 감소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임.

[그림 14] 이라크의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액 추이(2020.12월~2023.9월, 백만 달러)



자료: OECD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4.01)	7등급 (2023.01)
Moody's	Caa1 (2023.11)	Caa1 (2021.11)
Fitch	B- (2023.12)	B- (2022.12)

### OECD는 7등급 유지, 국제신용평가3사도 투자부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1996년 이래 현재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2024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하였음.
- Moody's는 Caa1, Fitch는 B-를 각각 부여하는 등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 중에서도 하위권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이라크는 2020년 말 기준 원유 확인매장량 세계 5위, 일평균 산유량이 OPEC 내 2위이며 향후 매장량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원 부국으로, 총수출의 95%를 석유 부문에 의존하는 편중된 경제구조를 가졌음. 2023년은 국제유가 하락 및 감산 결정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이라크 정부는 원유 외에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도 본격화하고자 노력 중임.
- 2022년 10월 정식 내각 출범 후 비교적 안정된 정치환경 아래 2023년 12월 10년 만의 첫 지방선거를 실시하였음. 다만, 쿠르드 자치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원유 수출권을 놓고 갈등이 발생 중임.
- 전력·식수 등 공공 서비스의 부족, 실업난, 빈부격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어 반정부 시위와 파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 이란-미국 갈등 상황 및 IS 잔당으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 OECD는 1996년 이후 이라크의 국가등급을 최하등급(7등급)으로 유지 중이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모두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외거래와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음.